

# 컴퓨터 用語의 濫用

컴퓨터라는 말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전하는 文句로 쓰이는 것을 가끔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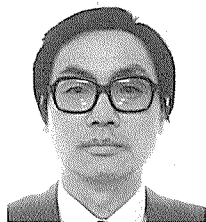
「컴퓨터 X X X」라는 표현을 보게되면 그 제품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우수제품같이 느껴지고 기능도 자동조절 되어 편리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된다.

이와는 달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전문을 볼 때도 있다. 첨단제품인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그 처리결과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속셈일 것이다. 이 경우, 컴퓨터의 기능이나 성능(하드웨어)이 이용됐겠지만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.

컴퓨터는 자료(데이터) 처리의 수단일뿐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나 그 처리방법 및 論理(소프트웨어)는 컴퓨터 자체와는 구별해야 한다.

어느 제조업체에서 업무 電算化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주관부서의 책임자가 각 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「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우리가 정확한 기준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으면 ‘멍청이’가 되어버립니다」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있다. 컴퓨터가 수단이라는 것을 잘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.

컴퓨터 入門書 등에서도 이 같은 표현을 보게된다. 어느책에서인가 「컴퓨터의 하드웨어자체는 쇠붙이에 지나



## 김증모

(주)한국데이터뱅크 해외사업본부장

지 않는다. 그것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달려있다」라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다.

‘명칭이’라는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나 컴퓨터는 하여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바보도되고 천재도 될 수 있다. 즉 컴퓨터는 道具일 뿐이라는 것이다.

컴퓨터가 최신기술제품이고 매우 복잡한 업무를 손쉽게 처리해 준다는 의미때문에 컴퓨터라고하면 그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. 그러나 이제는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컴퓨터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.